

독일 지역정보의 이론적 고찰과 문화 교육방법

유수연
(이화여자대학교)

Yu, Suyon. (2017). Theoretische Überlegungen zur deutschen Landeskunde und deren Didaktik. *Foreign Language Education Research*, 20, 79-93.

Die vorliegende Arbeit beschäftigt sich mit Konzepten und Ansätzen der Landeskunde, die sich in Bezug auf die jeweilige soziale Situation und den Lernerbedarf historisch entwickelt haben. Im Fachbereich Germanistik herrscht seit 20 Jahren die Krise der Geisteswissenschaft. Statt Literaturveranstaltungen, die von Studenten abgewählt werden, wurde Landeskunde als ein neues Veranstaltungsangebot in den Vordergrund gestellt, damit die Germanistik wieder einen Aufschwung erleben kann. Aber in Korea wurden die Begriffe, Konzepte und Inhalte der Landeskundeveranstaltungen noch nicht festgelegt, z.B. ist unklar, was man unterrichten soll und auch wie man unterrichten soll. Aus diesen Gründen wurde in der vorliegenden Arbeit versucht darzustellen, wie Landeskunde im Fachbereich Deutsch als Fremdsprache in Deutschland diskutiert wird. Zuerst wurde die historische Entwicklung der Landeskundeansätze vorgestellt, wobei das Konzept und der Inhalt bzw. die Schwerpunkte diskutiert werden, was mit den Zielen und dem Lernerbedarf des Fremdsprachenunterrichts zusammenhängt. Darüber hinaus wurde am Ende der Arbeit ein didaktisches Konzept kurz vorgestellt. In Korea werden im Rahmen der Universität die zahlreichen Landeskundeveranstaltungen meistens von Literaturwissenschaftlern angeboten, sodass der Themenbereich Literatur als Kultur zu sehr hervorgehoben wird, was dem Bedarf der Lerner und der Gesellschaft überhaupt nicht entspricht.

Kommunikative und interkulturelle Landeskunde beschäftigt sich mit der Situation und Themen bzw. Inhalten, die unsere Lerner motivieren, weil solche mit ihnen selbst und ihren Interessen sehr eng verbunden ist.

Key Words: Landeskunde, Begriffe des Landeskunde, Kultur, Kommunikation, interkulturelle Landeskunde

I. 들어가며

독일문화, 지역학, 지역정보는 최근 독어독문학을 포함한 인문학의 위기가 논의되면서 중요성과 시의성을 갖는 개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인문학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으로 독일문화, 독일 지역학에 대한 필요성이 논의 되고 있으나 이렇게 독일문화, 지역학, 지역정보 등을 혼용해서 쓰듯이 그 개념이 아직 정확하게 정립되지 않았다.

이제까지의 대학교육에서 등한시되어 왔던 지역정보가 갑자기 각광을

반응에 따라 독일문화와 지역정보를 다룬 강의들이 많이 도입되었다. 또한 우리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EU 에서의 독일의 주도적인 역할 등으로 독일 지역학 연구자의 양성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부상되었으나 누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실제로 독어독문학과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과목의 내용은 문예학을 주로 포함하는 문화학(Kulturwissenschaft)으로서 주로 문학전공자에 의해서 전달되는 문예학적 지식을 뜻하는 개념이 되었다.

그래서 본 논문은 독일의 외국어로서의 독일학(Deutsch als Fremdsprache) 분야에서 논의되는 독일문화 및 지역정보의 개념과 내용, 원칙에 대해 논의한 후, 이를 통한 교수전달 방법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독일 지역학에 대한 논의는 독일에서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지역학은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학과에서 학문의 한 분야로서 언어습득연구(Sprachenerwerbsforschung), 언어교수연구(Sprachlehrforschung)과 더불어 한 축을 차지하고는 있다(Vgl. Koreik/Henrici 2010) 이 논문에서는 지역학 개념과 내용의 시대적인 변천을 다루고 지역정보 전달을 위한 최신 교수방법을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I. 지역정보의 개념과 원칙의 변천

독일의 외국어로서의 독일어의 지역정보의 개념은 시대적인 교수방법에 따라서 변천을 이루어왔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역학, 지역정보로 불리고 있는데 독일에서도 초기에는 Landeskunde, Landeswissenschaft, Deutschkunde, Deutschlandkunde, Deutschlandforschung, Kulturkunde, Auslandsstudien, Auslandskunde, German Studies, Area studies, Regional studies 등의 여러 가지 개념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지역정보(Landeskunde)란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는 지역정보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 합의점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러한 학문적 논의를 이루기까지 많은 세월이 걸린 것이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지역정보는 인지적 지식 전달중심에서 벗어나 의사소통적 관점이 중요히 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결국 언어수업에서 따로 떼어낸 지역정보 수업이라기 보다는 독일어 습득을 위한 지역정보 수업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학자마다 명시적 지역정보(explizite Landeskunde), 암시적 지역정보(implizite Landeskunde)로 나누어 각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학습자의 관점에서 수요에 따라서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장에서는 시대별로 지역정보의 핵심개념과 원칙을 정리해보고 그 변천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실용정보 Realienkunde

실용정보의 근본적 특징은 목표국가와 그 나라 사람들에 대한 실용적, 공리적, 실리주의적이 지식을 강조하는 것이다. 실용정보는 문법번역 교수법에 의거한 고전문학을 번역하기 위해 문법 전달과 어휘를 공부하는 것을 외국어 수업의 최고의 목표로 여기던 성향에 대한 반향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는 문법 번역교수법에 의거하여 고전문학을 자기자신의 언어로 번역하며 외국어를 배우고 인문학적인 교양과 정신수양을 쌓아가는 사람들이 막상 목표국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를 비판하면서 대두되게 되었다. 그러므로 고전 번역에서 벗어나서 그 나라와 사회에 대한 중요한 사실이 전달되어야 한다는 현실적 언어교육의 요구에 따라 문법과 단어 이외에 지리, 역사, 경제관계 등이 전달되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외국어 수업으로의 한 단계 더 발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 나라에 대한 실질적이고도 인지적인 지식 전달이 특징이다.

2. Kulturkunde 문화정보

1920년때까지만 해도 라틴어, 히브리어, 고대 그리스어와 같은 고전어를 배우는 것이 인문인의 교양이라고 생각하고 성경이 쓰여진 위의 세 가지 외국어 공부에 치중하였다. 이때 발달하기 시작한 음성학회를 통하여 외국어수업의 대변혁이 일어나기 시작하여 라틴어, 히브리어, 고대그리스어와 같은 고전어가 아니라 실제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신 외국어 수업(neusprachlicher Unterricht)을 수행해야 한다고 목소리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 외국어 수업의 모든 분야에서는 문화가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문화정보(Kulturkunde)란 위의 실용정보에서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서 실용정보와 같이 한 나라에 대한 백과사전적인 지식이 아니라 외국의 낯선 문화를 총체적으로 관찰하고, 그 나라와 민족의 존재를 자기자신의 나라와 민족에 대비하여 이해하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곧 그 민족의 특성을 파악하고 자기자신의 나라에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다. (Koreik 2010:1446).

3. Landeskunde 지역정보

1970년대에는 지역정보라는 용어와 개념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되었다. 이때부터는 사회적 변화와 언어학적인 발달에 따라 외국어수업에도 큰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의사소통을

성공적으로 이루려는 외국어수업으로의 변화가 매우 큰 시기이다. 또한 교육학적으로도 변화를 이루어 외국어 수업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과목에서도 학습자의 권리가 비교적 교사와 평등하게 된 시대라고 볼 수 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외국어수업 및 교사양성 기관에서 지역정보의 개념이 구체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지역정보라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지역정보의 여러 조류가 생겨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역정보는 그 내용에 있어서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 여러 갈래로 갈라지게 된다. 주요 지역정보의 종류는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지역정보, 의사소통적, 상호문화적 지역정보로 나눌 수 있다. 다음은 지역정보의 내용에 따라 분류한 내용이다.

1) 객관적 사실전달로서의 지역정보 (faktische Landeskunde)

객관적 사실전달로서의 정보란 예를 들어 정치구조와 체계, 독일의 지리 또는 경제, 사회상황에 대한 통계자료, 자동차의 독일에서의 경제적인 역할, 관습과 풍습 등 주로 객관적 사실, 통계 등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중심이 된다. 객관적 사실중심의 지역정보 중 중요 분야는 관습과 풍습(Sitten und Bräuche)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학습자에게 특정 문화적인 현상을 묘사한 텍스트를 통해서 정보를 주는 것이다.

외국어 수업 내에서는 객관적 사실의 지역정보는 하위적, 동반자적 역할을 한다. 학습자는 목표어의 사회와 문화에 대해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하지만 이 지식은 객관적 사실, 데이터, 숫자의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문화를 전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백과사전적인 요구가 숨어 있다. 이때 다루어야 할 테마는 역사,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문예학 등 관계된 학문에서 나온다. 문화는 이 객관적 사실의 지역정보의 조류, 즉 인지적인 지역정보 조류에서 전통적인 문화의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급문화’의 의미이다.

객관적 사실전달로서의 지역정보는 우선 문화의 개념부터 전통적인 협의의 문화개념과 광의의 문화개념을 나눠볼 수 있다. 협의의 문화는 문학, 미술작품, 대표적인 건축물, 고전 발레 등을 들 수 있고 이러한 문화개념은 매우 오랫동안 유럽과 서구 사회에 만연해 있었다. 협의의 문화의 개념은 진실되고, 아름답고, 고상한 것만 문화로 이해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이나 업무, 테크닉 같은 것은 저급한 것으로 여겨 문화로 생각하지 않았다. 경제, 사회, 정치도 협의의 문화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고급’ 문화로 여기지 않았다. 70년대 초에서야 광의의 문화개념이 널리 퍼지게 되어서 사회, 정치적인 테마, 환경, 일상생활, 업무, 테크닉 같은 것도 문화에 포함되었고 만화, 대중음악, 패션, 광고 등도 문화에 포함되게 되었다. 이전의 전통적이고

협의의 문화의 개념으로만 본다면, 바흐의 음악, 뒤러(Dürer)의 미술작품, 바흐만(Bachmann)의 시, 괴테(Goethe)의 문학작품 등이 문화로 파악이 되지만, 현대의 광의의 문화의 개념으로는 마이클 잭슨의 팝음악, 알프스산의 관광으로 야기된 환경문제라든지, 스위스 풍류의 레시피, 베를린 장벽에 그려진 그래피티, 인터넷에 올린 한 학생의 시 등등이 모두 문화에 포함되게 된다.

지역정보에 대한 지식은 대부분 객관적 사실의 형태, 표, 통계, 그래픽 등의 형태로 표현된다. 또한 그림과 사진은 오리지널 형태로 포함되었고 이런 자료들은 독일 뿐만 아니라 독일어를 사용하는 나라 - 스위스 오스트리아 - 를 대표하는 것이다. 이런 객관적 사실 중심의 지역정보로 쓰여진 독일어 교재에서는 빈번히 도입부분, 연습문제 부분, 지역정보 부분의 모델을 따라 쓰여졌다.

이러한 인지적인 지역정보는 1950년에서 약 1980년까지의 독일어 교재에서 주로 나타난다. 가능한 한 객관적인 지리적, 역사적, 정치적, 문화적인 사실을 강조한 내용을 다루는데 예를 들어 '모젤 지방의 와인 경작', 정치적인 테마, '법률', '외교정치', 사회적인 테마인 '여성과 여성운동', '천주교회와 개신교회'나 문화적인 테마('극장', '건축', '광고') 등을 당시 사회현상을 보여주는 주제들을 소개한다. 하지만 이러한 독일어 교재내의 사실적인 지식은 일상생활의 행위와는 매우 제한된 관계를 갖는다. 이는 그 분야 내에서는 매우 전형적이고, 특징적이거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었으나 학습자에게 왜 바로 이것이 유용하거나 필수적일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가 않았다. 보통의 독일어 화자가 가지는 지식이 아닌 너무 전문적 지식이 포함되어 있어서, 특히 어린 학습자들에게는 관심을 끌지 못하고 외국어 학습과정을 거의 촉진시키지 못 하였다. 결국 인지적 지역정보는 목표어 국가의 여러 면을 체계 없이 모아 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객관적인 사실 중심의 지역정보는 일상적인 문화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고 있지 않아서 학습자가 맞닥뜨릴 만한 상황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외국어수업과 따로 떼어서 학습자의 모국어로 이루어지는 수입이므로 언어습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저 배경지식으로서만 기능을 할 뿐 의사소통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다음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의사소통적인 지역정보를 소개한다.

2) 의사소통적 지역정보

Krumm(1994: 27f.)은 '외국어 학습이란 다른 문화로의 입구를 찾는 것이다' 라고 할 만큼 현대 외국어 수업에서는 문화의 위상이 높아졌다.

하지만 객관적인 사실 중심의 문화만으로는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데 무리가 있고, 학습자와의 관련이 거의 없어서 학습자의 동기를 충족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배경지식으로서 객관적 사실의 지역정보는 받아들일만하다.

Penning(1995)은 “지역정보란 낯선 문화의 의사소통 상황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신중한 협상의 과정에서 주체적으로 행동하기 위하여 의사소통의 언어외적 조건, 규칙체계, 의사소통에 전제된 지식을 주로 다루는 것으로 보았다.

Landeskunde ist die Beschäftigung mit den primär nichtsprachlichen Bedingungen, Regelwerk, und Präsupponierten Wissenbeständen von Kommunikationen, um in einer fremden Kultur kommunikative Zusammenhänge richtig zu deuten und sich selbst in einem Prozeß des vorsichtigen Aushandelns zu verhalten. “

Penning (1995, 628)

언어학이 언어를 체계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사물과 사건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의사소통 매개체로서 이해하기 시작하자 외국어 수업에서의 지역정보의 의미도 달라졌다. 곧, 화용론의 발달로 언어의 구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어의 쓰임새, 곧 의사소통의 기능이 강조되게 되었다. 외국어 학습이 정신수양과 학문적 분석이 되는 의미보다는 화용론이 외국어 수업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상황과 의도, 이 언어 의도를 표현하는 방식이 중요해진 것이다.

이 시대에는 화용론과 사회과학에 기초를 둔 지역정보가 반영하고 있었다. 이어서 1990년대에는 역시 화용론적이고, 상호문화적인 학습에 대한 교육학적인 이해가 지역정보에 반영되고 있었다.

로버트 보쉬 재단(Robert Bosch Stiftung)과 독일 프랑스 연구원(Deutsch-Französisches Institut)의 슈투트가르트 명제(Stuttgarter Thesen)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방적인 언어능력중심, 객관적 사실중심의 지역정보 내용을 전달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Robert Bosch Stiftung und Deutsch-Französisches Institut 1982:11). 그래서 일방적으로 해당 나라에 대해 인지적 객관적 사실 중심으로만 지역정보를 공부하는 것을 지양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들이 주장은 문화 비교 방법과 학습자 중심의 지역정보 수업, 실제와 같은 의사소통 상황과 언어적, 비언어적 요소에서 나타나는 낯선 문화의 실제, 자기자신의 고유 문화의 실재를 이해하고 토론하는 것을 준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의사소통적 지역정보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가 중요하다.

- (1) 학습자 자신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무엇을 배우려고 하는지,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출발점이다. (Barkowski u.a. 1980:104).
- (2) 지역정보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전달하는 것은 학습자가 특정행위흐름에 대해 이미 경험을 갖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다. 일상생활지식, 상식이 이미 학습자 안에 내재되어 있고 이 경험이 외국어를 학습하고 외국어로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서 얼마든지 활용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의사소통적 지역정보는 상황에 대한 정보를 학습자에게 미리 준다. 즉, 가까운 미래에 학습자가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를 미리 예상하고 이 상황과 맥락에서 어떤 의사소통 표현이 필요한가를 예측하고 준비시키는 것이 교육적 특징이다. 그러므로 의사소통적인 지역정보는 주로 외국어 수업과 결합되어, 외국어 수업 내에서 전달된다.

의사소통적인 지역정보는 텍스트를 통하여 ‘보통 사람들’을 보여준다. 이런 보통사람들은 평범하고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일상적인 직업을 갖고 일하며, 중산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들이 독일어권 나라의 일상생활을 대표하게 된다. 역사, 역사적 사건, 변혁 등도 소위 아래에서부터의 시점, 이런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의 매우 개인적인 관점에서 서술된다. 이런 교재의 예로는 Tangram 이나 studio d, Deutsch aktiv neu 등을 들 수 있다.

의사소통적 지역정보는 주로 실제와 같은 텍스트 (Authentische Texte)를 다루는데 실제 상황에서 진짜 사용되는, 모국어화자의 규범에 적합한 텍스트를 실제와 같은 텍스트라고 한다. 이 실제와 같은 텍스트의 특징은 텍스트가 가능한 한 많은 문법 기능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고 텍스트 자체가 하나의 의도를 갖고 뭔가를 전달하고자 한다. 곧 텍스트종류의 다양함과 언어행위가 중요하다. 신문기사나 보고서, 광고 등 특정한 형식을 갖춘 텍스트 종류가 있어야 하고 이 텍스트가 쓰여진 실제상황에서 행위해야 할 수용자를 전제로 한다. 예를 들면 편지글, 레스토랑의 메뉴판, 차표, 신문기사, 신문광고 등 학습자가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의 텍스트 종류 등을 다루게 된다.

그래서 의사소통적인 지역정보는 정보중심적이고 동시에 행위중심적(handlungsorientiert)이다. 이 지역정보는 의사소통 능력을 상위의 목표로 두고 언어행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자신의 의도가 전달되는 것을 증진시키고자 하고 동시에 일상생활의 현상을 이해하는 것을 장려한다. 예를 들어 어떤 여성이 독일의 레스토랑에 가서, 거기서 서빙하는

사람을 불러 ‘그녀가 커피를 마시고 싶다는 것’, ‘테이블 위에 설탕이 없다는 것’, ‘계산을 하고 나가고 싶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한다고 가정하자. 그녀의 전달의도를 위해서는 대부분의 독일어화자가 카페나 그와 비슷한 상황에서 사용할 표현을 그녀가 사용해야 할 것이다. 그녀의 욕구는 "Ich hätte gerne eine Tasse Kaffee!" oder "Bringen Sie mir bitte eine Tasse Kaffee!" 등으로 발현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능력이 새로운 학습목표가 되었다. 이러한 목표가 지역정보의 내용을 변화시켰다. 곧, 학습자의 의사소통 욕구와 관심에 초점을 두고, 다른 나라의 일상생활 문화의 상황에서 그 나라 사람들과 비슷하게 언어를 표현하며 알맞게 행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역정보는 이로써 외국어학습의 구성물이 되어, 엄밀히 말하자면 지역정보가 주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의사소통 능력 개발을 위한 지역정보와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써 독일어 교재의 테마는 일상생활을 독일인의 일상을 소개하고 일상을 잘 영위해나갈 수 있는 첫만남, 교실 또는 집안의 사물, 도시와 나라, 집, 약속하기, 길 찾기, 직업에 대해 말하기, 휴가, 식생활, 의생활, 건강 등 가장 친숙한 일상적 테마로 주를 이루게 된다. 여기서 사용하는 표현도 문법과 정확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독일식 표현을 배운다. 하지만 의사소통적 지역정보에서는 독일적인 것만 너무 강조하고 일방적인 독일어권 문화만 소개하는 경향이 있어서 상호문화적인 지역정보가 생겨나게 되었다.

의사소통적 지역정보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일상생활문화를 다룬다. 예를 들어 독일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여가를 즐기며 서로 어떻게 교제하게 되고, 어떻게 공동체에 참여하는지, 직업을 어떻게, 어떤 교육을 받는지에 대한 내용들이다. 그래서 의사소통 중심적인 교재에 나타난 지역정보를 보면 거주공간, 여가와 취미, 첫만남의 대화, 직업과 일, 독일의 학제 등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학습자의 상황을 고려한 것이고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고려한 것이고 가까운 미래에 목표언어로 극복해야 할 상황이므로 학습자에게 꼭 필요한 지역정보, 학습자 중심적인 장점이 있다.

3) 상호문화적 지역정보

의사소통적인 지역정보는 주로 독일사람들의 일상생활과 독일인의 표현 방식, 독일적 상황에서 이를 독일어로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초점을 두었다면, 상호문화적인 지역정보는 의사소통적인 지역정보보다는 한걸음 더 나아가 학습자의 인지와 학습자의 문화적 관점을 고려한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의사소통적 지역정보는 독일문화를 너무 ‘강요’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상호문화적 지역정보는 학습자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모국어 사회의 문화로 사회화 되어왔고, 이러한 문화를 그래도 인정하고 전제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모든 인간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자기 고유의 문화와 연관된 확신, 입장, 행동양식 등을 습득하게 된다. 모든 인간은 구체적이고, 문화에 종속된 정향 체계를 발달시킨다. 이러한 각각의 구체적 문화의 정향시스템(Orientierungssystem)은 인간의 인지, 사고, 행위에 영향을 준다. 정향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언어이다. 언어는 구체적인 문화에 의해 각인되고 한 사회의 실제적인 삶을 반영하여 한 단어가 사회, 문화적으로 갖고 있는 뜻은 나라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집’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인간이 들어가 사는 건물’이다. 하지만 이러한 언어학적 단어 설명 속에는 정서적, 감정적, 문화적인 의미가 결여되어 있다. 모든 학습자들을 단어를 매우 주관적이고 문화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사용하므로 구체적이고 사전적, 서술적인 의미를 넘어서 사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 학생의 ‘저녁식사’는 빵(Brot), 치즈, 햄 조각이 아니다. ‘집(Haus)’이라는 단어가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의미는 각각 다르다. 러시아 교환학생이 독일인 홈스테이 가족에게서 “Bitte fühlen Sie sich wie zu Hause.” 란 말을 들었다면 손님 대접을 하지 않는다고 싫어할 것이다.

이러한 예는 문화적으로 한 단어의 뜻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같은 사물을 서로 다른 문화에서는 얼마나 다른 영향 하에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래서 외국어 수업 중에 한 단어를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만 연결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사전적인 의미는 문화적인 사용을 불가능하게 하고, 문화와 연결된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의 서로 다른 가치를 알 수 없게 만든다. 그러므로 외국어 학습 자체가 문화 학습이 되어야 한다.

또한 표정, 손짓, 동장, 억양, 강세 등 비언어적인 요소도 의사소통에 큰 영향을 미친다. 간단하고 명확해 보이는 “머리가 아파요”라는 말에 동반되는 언어외적인 신호가 ‘적합하지 않게’ 느껴진다면 혼돈을 가져올 수 있다. 두통이 있는 그리스인은 아프다는 얼굴표정과 이에 알맞은 억양으로 알릴 것이고, 스웨덴인은 이성적이고 감정이 없는 것처럼 하지만 독일인은 이런 표현력의 중간 정도만 할 것이다. 사실상 고통을 얼마나 느끼는지의 강도와 이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몇몇 문화에서는 표현을 더 강하게 하는 태도를 기대한다: 그렇지 않다면 혼란을 가져온다.

대화의 상대방이 문화적으로 제한된 다른 기대와 습관을 알지 못 한다면,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편견과 연결되어 이전의 공통점을 없애버릴 수 있는 치명적인 혼란이 쉽게 생겨난다.

상호문화적인 능력은 다른 것들 중에도 문화적인 차이에 대한 지식과, 아직 모르는 특정 문화의 행동양식과 대면할 수 있는 경험에 있다. 이는

도덕적으로 평가하거나 이상한 개성으로 해석 되어서는 안 되고 이해하고 배려해야 할 특정 문화의 규범으로서 해석되어야 한다.

의사소통적 접근방법에는 언어를 맥락과 상황에 맞게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의 의사소통 행위가 그 중심이 된다. 그러나 인지작용이 서로 다른 문화적, 개인적인 경험의 영향을 받는다면 우리가 다른 나라의 어떤 상황을 맞이하여 이 상황을 원래 의도되었던 것과는 다르게 해석하고 이해할 가능성이 있다.

“침묵과 말의 휴지기 및 비언어적 행동은 의사소통에서 핀란드와 독일에서 각각 다른 기능을 갖는다. 핀란드인은 침묵과 휴지기에서 심사숙고 함을 보여주고 말로서 사고과정의 결과물을 전달하는 반면에 독일사람은 크게 생각하면서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독일사람을 침묵과 휴지기를 당황스럽다고 이해하기 때문이다.”

(Schröder 1990:139ff.)

결국 핀란드 사람을 독일 사람이 너무 크고 빠르게 말해서 끼어들 틈이 없다고 생각하고, 독일사람은 핀란드 사람의 말의 휴지기가 너무 길게 느껴져서 이런 어색한 휴지기를 매꾸어 보고자 계속 말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의사소통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침묵과 말의 휴지에 대한 각각의 인지와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당황스러운 상황이 올 수 있다. 상호문화간 상황에서는, 곧 다른 문화와의 직접적인 만남에서는 의사소통 시에 이런 어려움이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 바로 우리 고유의 문화의 경험과 배경을 가지고 인지하고 해석하기 때문이다.

상호문화적 지역정보 접근방법을 통해서 의사소통적 지역정보를 더 확대하여 학습자들이 자신의 인지작용이, 자기 고유의 생각과 감정이 자기 고유의 문화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배우고, 서로 다른 언어에서의 개념들이 항상 같은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의식을 갖게 되며, 잘 모르는 낯선 의미를 풀어낼 수 있는 전략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바이람 Byram (1997)은 상호문화 소통능력을 지식, 태도, 기술이라고 보고 이에 따라 각 요소 별로 세부 수업목표를 제안하였다. 태도관련 수업목표로는 다른 문화권에 대한 대등한 태도와 관심, 자신의 문화와 다른 문화에 대한 가치에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을 꼽았다. 지식관련 수업목표로는 자신과 상대 문화의 역사적 관계, 지리적 지식, 관습, 제도 등에 관한 지식을 말한다. 기술관련 수업목표로는 상이한 관점에 대한 확인과 설명 능력, 갈등을 해석하고 중재할 수 있는 능력, 자료에서 나온 개념과 가치를 다른 현상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등을 말하고 있다. 이어서,

수업내용을 다루는데 선행되는 용어이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의사소통 능력, 문화, 기저문화, 고정관념·편견, 정체성, 관용·편협성 등에 대해 정의해 본 후, 상호문화 소통능력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놀이와 시뮬레이션을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또한 베넷 Benett (1993)은 상호문화 의사소통 능력이 다른 문화와의 직·간접 경험 및 다른 문화권 사람들과의 소통 경험과 반성적 사고와 순환적으로 반복하는 과정을 통하여 신장될 수 있다고 하였다. 다른 문화권 사람들과의 구체적 경험, 반성적 관찰, 추상적 개념화, 능력 실험의 네 단계가 순환적으로 반복됨으로써 이러한 상호문화 능력이 개발됨을 보여주었다. 즉, 상호문화 의사소통 능력은 지식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마음과 태도의 변화, 학습자의 사회문화적 정체성이 변화되는 과정 등이 포함된다. 곧, 베넷은 지식의 측면보다 학습자 자신의 변화 과정이 더욱 더 중요한 요소라 생각하고, 상호문화 의사소통의 현장에서 우리 자신이 그때그때 어떻게 느끼고 생각했는지, 지금은 어떤지, 그 경험으로 어디에 도달하게 되었는지 반추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를 개발하였다. 그는 ‘상호문화 접촉 경험의 자기기록(Autobiography of intercultural encounters) (AIE)’를 통해 상호문화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기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상호문화 적인 지역정보는 객관적인 사실, 의사소통적 능력을 넘어서서 자기 자신의 관점의 변화 자신의 상호문화 과정을 통한 인격적 문화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상호문화적 지역정보와 관련이 있는 준 것은 독일의 교육학에서 오는 상호문화학습(interkulturelles Lernen)이다. 졸백케(Solmecke 1994:165)는 “카멜레온인 지역정보가 상호문화적 학습을 발견하여 다시 그의 색을 바꾸었을 뿐 그 외엔 그냥 같은 동물로 머물러 있다”라고 할 만큼 상호문화학습과 지역정보는 비슷하고 같은 개념이라 볼 수 있다.

Chamäleon Landeskunde mit der Entdeckung des interkulturellen Lernens wieder einmal seine Farbe gewechselt hat, aber ansonsten doch das gleiche Tier geblieben ist“

(Solmecke 1994:165)

이외에 많은 학자들이 상호문화적 학습을 지역정보의 역사적 후계자로 보고 있다. 하지만 Krumm(1995:157-158)은 (1)지역정보(Landeskunde)를 (2)낯선것을 이해(Fremdverstehen) 하는데에 초점을 맞추는 문학교수법과 (3)외국인을 위한 교육학의 상호문화학습으로 각각 구분하여 세 가지로 정의하였다. 즉, 상호문화적 학습은 상위에 놓인 외국어교수법적인 개념으로 보고 지역정보(Landeskunde)는 자기 자신의 문화적인 지식구성을 반추하고 상대화시키는 것 외에 낯선 문화에 대한 지식습득 이 중심이 되는 것이다.

지역정보는 내용적이고 구체적인 부분이고 상호문화학습은 방법론적인 과정과 절차에 관계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언어학적인 면에서 보면 상호문화적인 학습은 화용론적, 의사소통적 원칙에 연결되어서 상호문화적인 순간을 출발언어와 출발문화를 통한 의사소통 스타일의 전달과 대비 연구, 그리고 학습자 중심에 더욱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입, 톨러랑스, 갈등해결능력을 갖게 해준다. 다음은 이에 대한 Krumm 의 의견이다.

(Durch) interkulturelle Lernen gewinnt der Fremdsprachenunterricht eine soziale und pädagogische Dimension zurück, die audiolingualen wie teilweise auch kommunikativen Ansätzen fehlte (...), nämlich die Entwicklung von Empathie, kritischer Toleranz und die Fähigkeit zur Konfliktbewältigung; als Element politischer Bildung steht eine antirassistische, auf Aufklärung über soziale, wirtschaftliche und politische Ursachen von Ethnozentrismus und Kulturkonflikten gerichtete Zielsetzung im Mittelpunkt.

(Krumm 1995:159)

상호문화적인 지역정보를 통해서 외국어 수업은 단순히 외국어를 배우는 것에서 벗어나 반인종차별적이고 민족중심과 문화 갈등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원인을 해명하는데 기여하므로 정치적 교양의 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이는 지금같이 민족과 인종의 혼돈의 시대에 꼭 필요한 외국어수업이 아닐 수 없다.

IV. 결론

지금까지 지역정보에 대한 독일에서의 이론적 고찰과 역사적인 변천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독일에서는 외국어수업의 지역정보에 관해 오랫동안 고민하고 토론해왔다. 대표적으로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지역정보를 통해 그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전달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정보는 학생들의 관심과 맞지 않고, 독일 전체에 대한 특정 주제를 아는 것에 불과해서 외국인으로서 전문가 행세를 하는 것과 같아서 더 이상 주목을 받지 못 했다. 의사소통적인 지역정보는 학습자를 중심으로 하여 학습자가 가까운 미래에 맞이하게 될 상황과 이에 따른 주제, 이때 필요한 표현 중심으로 발달하게 되었다. 의사소통적인 지역정보는 외국어 수업과 따로 떼어낸 명시적 지역정보 수업이 아니라 독일어 수업과 통합된 형태이고,

그때 그때 학생들이 다루는 상황과 주제와 맞기 때문에 의사소통 교수법과 맞물려 전성기를 맞았다. 지금도 유효한 지역정보이긴 하지만 독일의 일상생활문화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듯 하고 학습자의 관심을 고려하긴 하였지만, 학습자의 고유 문화는 배제되었다. 그러므로 학습자의 고유문화를 처음부터 전제하고 들어가는 상호문화 지역정보가 개발되게 되었다. 상호문화적인 지역정보는 의사소통적 지역정보와 많이 다르지 않지만, ‘당신의 나라는 어떻습니까?’의 질문으로 항상 목표문화와 출발문화를 비교하고 장단점을 발견하고 강점을 찾아내는 과정이 있다. 상호문화 지역정보 수업에서는 더 나아가 자신의 상호문화능력을 개발하여 어떤 문화와 접하더라도 갈등 없이 관용과 감정이입으로 상대를 진실로 대하는 인격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결과 세계화 시대에서 어떤 문화권에서 온 사람과 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문화적인 갈등 없이 협조적으로 공조해나갈 수 있다.

지금까지 본 논문을 통해 이론적 고찰 결과, 독일어 수업에서의 지역정보는 의사소통적 방법과 상호문화적인 방법이 최근의 트렌드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지역정보를 명시적 지역정보로서 외국어수업과 따로 떼어내서 수행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독일에서는 독일어 학습 내에서 학습자의 목표에 따라서 자기성찰을 해가면서 본인의 문화와 목표문화를 자유롭게 비교하면서 습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독일어 수업 내에서 어떻게 지역정보를 의사소통 적으로, 또는 상호문화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연구하여 지역정보 교육방법을 외국어 수업에 통합하는 교수법을 개발해야 한다.

독어독문학과와의 위기를 지역정보로 타계해 보고자하는 시도가 있으나 독일의 지역정보에 대한 변천을 살펴보니 우리나라의 지역정보는 매우 지역적인 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독일 문화를 학습자 중심으로 공부하고 이를 의사소통에 활용할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하여 외국어 수업과 통합하여 가르치는 것이 효율적으로 보인다.

지구촌 세계화의 추세로 인하여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한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일이 빈번하므로 문화의 충돌은 일상생활이 되었다. 세계무대를 위한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업무적인 전문지식과 여러 나라의 문화적 지식을 겸비해야 하고 상호문화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역정보는 배경지식이 될 뿐이지 실제 외국어로의 상호작용 상황에서는 언어적 상호작용에 관련된 규칙, 예를 들면 발언권의 분배, 이해, 설명요구, 반복을 통한 이해확인 등 문화에 따라 의사소통 규칙에 지배되기 때문에 이러한 규칙을 알고 연습하기 이전에는 상호문화의사소통 능력을 갖을 수 없다. 그러므로 모든 상호문화 의사소통은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상호작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인지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독일어권의 문화를 알아가면서도 독일어학습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주제를 선별하여 독일의 문화와 지역정보를 배우고, 동시에 언어연습을 할 수 있을지를 연구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최신 부상하고 있는 여러 매체, 즉 인터넷, 스마트폰, 앱 등을 선택하여 최신의 정보를 접하면서도 창조적으로 결과물을 내고 발표할 수 있는 학습방법을 개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Koreik, Uwe / Pietzuch, Jan Paul (2010): Entwicklungslinien landeskundlicher Ansätze und Vermittlungskonzepte. In: Krumm, Hans-Jürgen / Frandrych, Christian / Hufeisen, Britta / Riemer, Claudia (Hrsg.): Deutsch als Fremd- und Zweitsprache. Ein internationales Handbuch (2. Aufl.). Berlin, New York: de Gruyter, (Handbücher zur Sprache- und Kommunikationswissenschaft, 35), 1441-1454.
- Biechele, Markus und Padrós, Alicia (2003): Didaktik der Landeskunde. Fernstudieneinheit 31. Berlin etc.:Langenscheidt.
- Byram, Michael (1997): Teaching and Assessing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Clevedon:Multilingual Matters.
- Henrici, Gert / Koreik, Uwe (1994): Zur Konstituierung des Fachs Deutsch als Fremdsprache. Eine Einleitung und Bestandsaufnahmen. In: Gert Henrici und Uwe Koreik (Hg.): Deutsch als Fremdsprache. Wo warst Du, wo bist Du, wohin gehst du? Zwei Jahrzehnte der Debatte über die Konstituierung des Fachs Deutsch als Fremdsprache, 1-42. Baltmannsweiler: Schneider.
- Krumm, Hans-Jürgen (1995): Interkulturelles Lernen und interkulturelle Kommunikation. In: Karl-Richard Bausch, Herber Christ und Hans-Jürgen Krumm (Hg.): Handbuch Fremdsprachenunterricht, 156-161. 3.Aufl. Tübingen/Basel:Francke.
- Neuner, Gerhard (1994): Fremde Welt und eigene Erfahrung - zum Wandel der Konzepte von Landeskunde für den fremdsprachlichen Unterricht. In:Gerhard Neuner *Hg.(> Fremde Welt und eigene Erfahrung / Konzepte von Landeskunde im Fremdsprachlichen Deutschunterricht, 14/39. (Kasseler Werkstattberichte zur Didaktik

- Duetsch als Fremdsprache 3.) Universität Gesamthochschule Kassel.
Penning, Dieter (1995): Landeskunde als Thema des Deutschunterrichts
- fächerübergreifend und / oder fachspezifisch. In: Info DaF 22, 6,
626-640.
- Robert-Bosch-Stiftung und Deutsch-Französisches Institut (1982, Hg.):
Stuttgarter Thesen zur Rolle der Landeskunde im
Französischunterricht. Gerlingen: Bleicher.
- Solmecke, Gern (1994): Interkulturelles Lernen im
Fremdsprachenunterricht. In: Karl-Richart Bausch, Herber Christ
und Hans-Jürgen Krumm (Hg.): Interkulturelles Lernen im
Fremdsprachenunterricht. Arbeitspapiere der 14. Frühjahrskonferenz
zur Erforschung des Fremdsprachenunterrichts, 165-171. Tübingen:
Narr.

유수연
이화여자대학교 독어독문학과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Tel. (02)3277-2186
Email: suyonyu@ewha.ac.kr

Received on 28 February 2017
Reviewed on 30 March 2017
Revised version received on 9 May 2017
Accepted on 30 May 2017